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군산시 7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 14일 까지 · 이행기간... 단계적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다. 다만 군산시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행 기간을 갖게 된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됐으며 군산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



백종현 보건소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됐다. 1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적 모임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다중

이용시설은 면적 6제곱미터 당 1명을 기준으로 시간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경우 방역관리 강화로 1단계부터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모든 단계에서 성가대 활동이 금지된다. 단, 백신 1차 접종자는 참석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구성된 성가대와 소모임의 경우 운영이 가능해진다.

군산은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 이서 지역과 같이 개편안 전면 시행 시 모든 규제가 일시 완화돼 방역 긴장도 이완 및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행기간을 둔다.

이행기간 동안 사적 모임의 경우 8명까지만 인원이 허용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시, '1일 읍면동장제' 건의사항 해결 순조

정현을 시장, 추진상황 보고회 건의사항 21.9% 처리 완료

주민 맞춤형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현을 시장이 직접 나섰다. '1일 읍면동장제'가 그동안 접수된 건의사항을 해결하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 정현을 시장 주재로 건의사항 관련 23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읍면동장제 건의사항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읍면동장제 시행기간 동안 총 54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119건(21.9%)을 처리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진 중인 건의사항 266건(48.8%), 장기처리 113건(20.7%), 종결처리·처리불가 47건(8.6%)의 추진 실적이 집계됐다.



주민 맞춤형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현을 시장이 직접 나섰다. '1일 읍면동장제'가 그동안 접수된 건의사항을 해결하며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침수지역배수로 공사 ▲도로·농로 확포장 공사 ▲버스노선 조정 ▲주차장 확충 ▲마을회관/청사 신축 등과 같이 시민들의 생활과 밀

접한 인프라 확충을 원하는 건의 비중이 높았으며,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도 다수 건의됐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의회, 제238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1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간담회와 29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이번 1차 정례회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각 분야별로 시민 복지, 건강, 지역경제와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각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 2021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주요안건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현안사업에 대해 직접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각종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 의원발의 8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29건의 조례종 원안

가결 24건, 수정가결 2건, 부결 2건, 보류 1건을 의결했다.

특히 각 상임위원별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된 제2회 추경 예산은 제1회 추경 1조 4139억 7000만 원보다 1059억 9000만 원(6.9%)이 증액된 1조 5199억 6000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과 김중신·배형원·설경민·서동완·김영자·정지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군산=한경봉기자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가 2022학년도 수시 및 정시모집을 앞두고 전체 구성원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가운데 박맹수 총장도 '1교수 1학교 방문행사'의 일환으로 직접 고등학교를 방문해 입시홍보를 펼쳤다.

박맹수 총장, 모교 방문 입시홍보

'1교수 1학교' 방문행사... 졸업 46년 만에 용산고 방문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가 2022학년도 수시 및 정시모집을 앞두고 전체 구성원이 신입생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가운데 박맹수 총장도 '1교수 1학교 방문행사'의 일환으로 직접 고등학교를 방문해 입시홍보를 펼쳤다.

1975년 서울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박맹수 총장은 지난 25일 졸업 46년 만에 모교를 방문해 원광대만의 강점을 소개하고, 대학 비전을 설명하는 등 신입생 유치를 위한 대학 홍보와 함께 후배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송태영 학교장 및 교감 고3 진학부장 동찬희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신입생 유치 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 고교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박맹수 총장은 간담회를 통해 "원광대는 지역에 있지만 타 지역의 종합대학에 비해 수도권 학생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며 "인구살벌 시대가 되면서 지역 공공기관들은 지역 대학출신을 우선 선발하는 추세이므로 색다른 도전정신을 가진 수험생들에게 원광대 입시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전 교직원들이 합심하여 2022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가급적 많은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는 학령인구 감소 및 소멸되어 가는 지방 살리기를 위해 개방형 캠퍼스를 지향하는 새로운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익산시 청년문화거리조성사업' 등 다양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대비해 학계 방학 중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1교수 1고교 방문행사'로 대학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학교폭력 예방·근절' 대책 나서

익산시가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대책 협의에 나선다.

시는 28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오택립 부시장과 익산교육지원청 익산경찰서, 지역 청소년 유관기관 협의회 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익산시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관별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와 기관 간 협조방안 등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각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오택립 부시장은 "기관 간 협력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2년 2월에 구성돼 익산시, 익산경찰서, 익산교육지원청 등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로컬푸드 농업인 소비자 SNS 소통창구 마련

군산농업기술센터는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인 로컬푸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직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로 구성된 '군산로컬푸드 사랑 SNS 시민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군산 로컬푸드직매장과 옥산 로컬푸드직매장에서 각 10명씩 총 20명을 선발해 오는 12월까지 로컬푸드 농산물 구매 후기, 행사 정보,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만들기 등 로컬푸드 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의 관점에서 로컬푸드 농산물의 만족도와 애로사항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 직매장 운영 개선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서부발전 군산본부 환경 개선 · 농자재 기탁

군산시는 한국서부발전(주) 군산발전본부가 농축산 녹색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약취저간제 50톤 토양개량 및 영양제 100톤의 농자재를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탁된 농자재는 축산 악취로 인한 축산 인근 주민과의 갈등 감소 및 원예농산물의 상품성 개선 및 연작피해 방지, 유지지 토양개량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산 및 원예농가, 유지지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축산 악취로 인해 축산농가와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자체 지원에 감사드리며, 농촌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서부발전(주) 군산발전본부(본부장 황우선)는 최신행 발전설비를 갖춘 친환경 복합발전소로 지금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익형 발전소로 자리매김하여 군산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커다란 버팀목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산=한경봉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